

< 11장. 영국의 자원순환정책 >

1) 정책 개요

영국의 폐기물관리정책은 'Less waste and more recycling'을 추구하고 있으며, 2005년~2006년 도시폐기물의 재활용/퇴비화 달성목표는 25% 이다. 현재 잉글랜드의 재활용 및 퇴비화율은 12%로서 유럽 전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에 영국정부가 수립한 폐기물전략(Waste Strategy 2000)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의 지표가 되고 있다.

영국 정부(DEFRA: 환경·식품·농업국)에서 치중하고 있는 폐기물분야 핵심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 EU Landfill Directive 제5조항의 목표이행(매립지 유기물 반입 감축목표)
- 다른 EU 법령과 제6차 환경행동프로그램의 철저 이행
- EU 법령을 근거로 자체 수립한 폐기물 회수, 재활용 및 퇴비화 목표달성
- 매립지로 반입되는 상업 및 산업폐기물의 감량목표달성
- 방사성 물질의 철저한 안전관리

영국의 EU Landfill Directive Article 5 상의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10년까지 1995년 생분해성 도시폐기물발생량 기준 75%까지 매립량 감축
- 2013년까지 1995년 생분해성 도시폐기물발생량 기준 50%까지 매립량 감축
- 2020년까지 1995년 생분해성 도시폐기물발생량 기준 35%까지 매립량 감축

EU의 다른 법령과 제6차 환경행동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을 반영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치중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별 전략으로 수립된 특정 목표의 달성 (예방과 재활용, 토양보호 등)
- 폐기물 기본법에 제시된 비자연적 농업폐기물, 광업 및 채석폐기물의 관리
- 유해폐기물 법령의 추가 내용
 - 폐유법/폐가전제품법/폐배터리법/포장법/폐자동차법/광업폐기물법

영국의 폐기물관리 관련 주요정책과 지침은 다음과 같다.

- Waste Strategy 2000
-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10 : Planning and Waste Management
-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23 : Planning and Pollution Control

폐기물 관련 주요법령을 재정된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Environmental Act 1995
- Finance Act 1996 and the Landfill Tax Regulations

- Special Waste Regulations 1996
- 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Packaging Waste) Regulation 1997
- Waste Minimization Act 1998
- Animal-by-products Order 1999
- Landfill(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02
- Renewable Obligation Order 2002(England and Wales)
- Waste and Emissions Trading Act 2003

이중에서 2000년에 수립된 폐기물전략은 영국의 폐기물 관련 모든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국가전략으로서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에 입각한 중요한 정책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 폐기물 회수, 재활용과 퇴비화에 대해 영국정부가 수립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05년까지 도시폐기물의 40%를 회수한다
- 2010년까지 도시폐기물의 45%를 회수한다
- 2015년까지 도시폐기물의 67%를 회수한다
- 2005년에는 가정폐기물의 최소한 25%를 재활용 및 퇴비화한다.
- 2010년에는 가정폐기물의 최소한 30%를 재활용 및 퇴비화한다.
- 2015년에는 가정폐기물의 최소한 33%를 재활용 및 퇴비화한다.

이 전략은 위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위해 관련 정부,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들이 분담해야할 역할 및 향후의 수행계획 등을 지침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영국은 1990년 환경보호법을 수립하여 EU의 폐기물관리기본법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1995년 환경법에서 추가적으로 그 이행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1990년 환경보호법에서는 폐기물에 관한 정의와 관리, 수거 및 처리책임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1995년 환경법은 1990년의 기본 틀에서 생산자책임에 입각한 국가폐기물전략의 목적을 채택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으며, 기존 EU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Hierarchy에 입각하고 기본적인 원칙(Principle)들을 준용하고 있다.

- 폐기물은 인간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공정과 방법으로 회수 처분할 것
- 폐기물처리시설은 통합적으로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가능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로 설치할 것
- 폐기물 처리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처리하되, 환경과 공공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방법으로 추진할 것
- 가능하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로 유해를 최소화할 것
- 폐기물을 재활용/재사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2차원료로 회수한 다음 에너지로 회수할 것

영국은 EU의 Landfill Directive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잔류도시폐기물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선 목표는 이러한 시설들이 포괄적으로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정책

는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것을 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전략의 실질적 수립은 직접 수거와 처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지자체이며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계획의 수립이 현재 영국전체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완료하였고 일부는 최근 마스터플랜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전략에서 고려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최적대안을 찾기 위해 제시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1.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매립중심으로 처분하는 방안

대안 2. 소각율을 50%로하고 재활용률을 25%로 하는 방안

대안 3. 소각율을 50%로하고 재활용률을 35%로 하는 방안

대안 4. 재활용률을 60%로 극대화하고 소각율은 현상황(10%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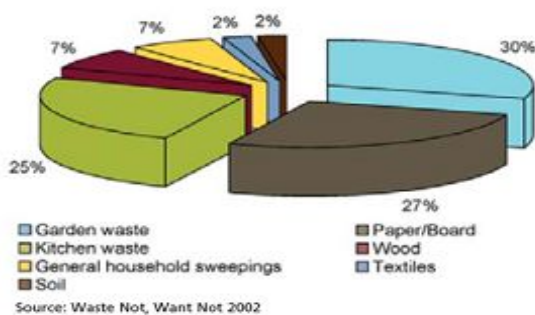
대안 5. 재활용 45%, 잔류도시폐기물 30%를 MBT와 소각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

상기 대안 중에서 가장 대안 5가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대안 1이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방안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대안에 고려된 내용은 투자비, 타당성, 환경적 이슈와 수용의 유연성 등이다.

[영국의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관리방안]

영국의 국가폐기물관리전략은 Landfill Directive의 감축목표 이행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정부의 환경식품농업국(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에서 수립한 생분해성 도시폐기물의 매립 감축계획을 중심으로 영국의 폐기물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분해성 도시폐기물은 호기 혹은 혐기성 조건하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물질들의 총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정원 및 공원폐기물, 종이, 포장지, 인쇄지, 코르크, 목재, 섬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II-33>은 생분해성 도시폐기물의 조성을 나타낸다.



<그림 II-33> 영국의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조성

이러한 생분해성 도시폐기물은 매립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침출수로 인근 수계는 물론 토양의 오염을 유발한다. EU는 더 이상 매립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며, 매립으로 인한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립되는 폐기물중 반응성이 있는 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반입 금지 대상에 생분해성 도시폐기물은 물론 플라스틱, 고무, 피혁류와 같이 생분해성은 아니지만 가연성인 물질도 포함시켜 최대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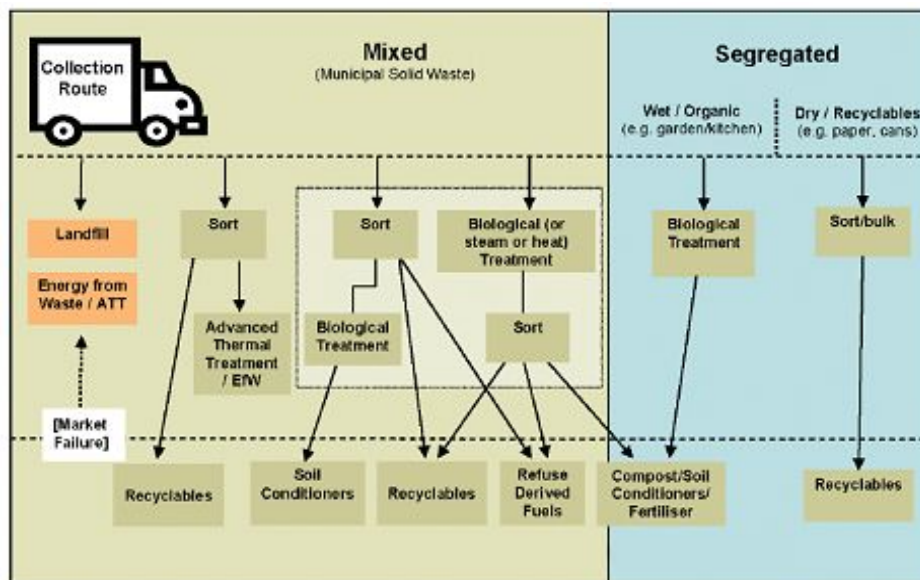
한 에너지잠재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 금지는 TOC를 기준으로 한다.

영국정부의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정책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 도시폐기물의 재활용과 퇴비화를 최대한 중요한 지표로 설정
- 매립세를 점진적으로 연간 톤당 3파운드씩, 최대 35파운드(2011년)까지 상승

생분해성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는 전체 폐기물관리의 Hierarchy와 동일하게 감량>재사용>물질 및 에너지로 회수>최종처분의 수순을 준용한다. 나아가 폐기물관리의 원칙 또한 동일하게 예방의 원칙, 근접원칙을 준용하되 지자체 스스로 자기구역 내에 충분한 용량의 처리 처분시설을 확보하게 하고 가장 합리적인 처리방안(BPEO: Best Practicable Environmental Option)을 수립하는 것을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림 II-34>는 영국의 폐기물 흐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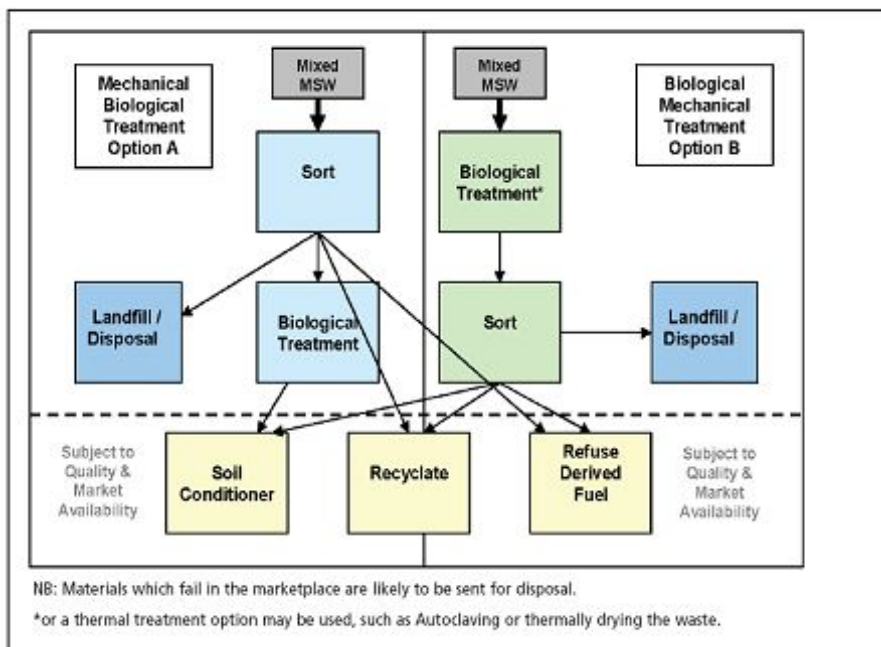
<그림 II-34> 영국의 폐기물 흐름도

별도로 분리수거되는 재활용품은 집하 지점이나 재활용센터와 같은 종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재활용 인프라로 이송, 재활용되는데, 이러한 재활용품의 수거방식은 가능하면 거점수거(Kerbside Collection)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일품목을 단일용기에 모으면 그만큼 복잡하기는 하지만 추가 선별의 필요성이 준다. 그러나 너무 많은 품목을 분리하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혼합된 플라스틱 중에서 PE, PP, PS, PVC, PET 등을 육안으로 구분하여 배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방법이 여러 이종 물질을 한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식이며, 혼합배출된 상태에서 별도 선별 시설을 거쳐 정밀하게 분류하여 재활용 처로 보내는 것이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재활용품의 선별시설을 MRF(Material Recovery Facility or Material Recycling Facility)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혼합된 잔류도시 폐기물로부터 선별을 하는 시설은 청결도가 떨어지므로 Dirty MRF라고 칭하고 이는 MBT/MBT 시스템과 동일한 내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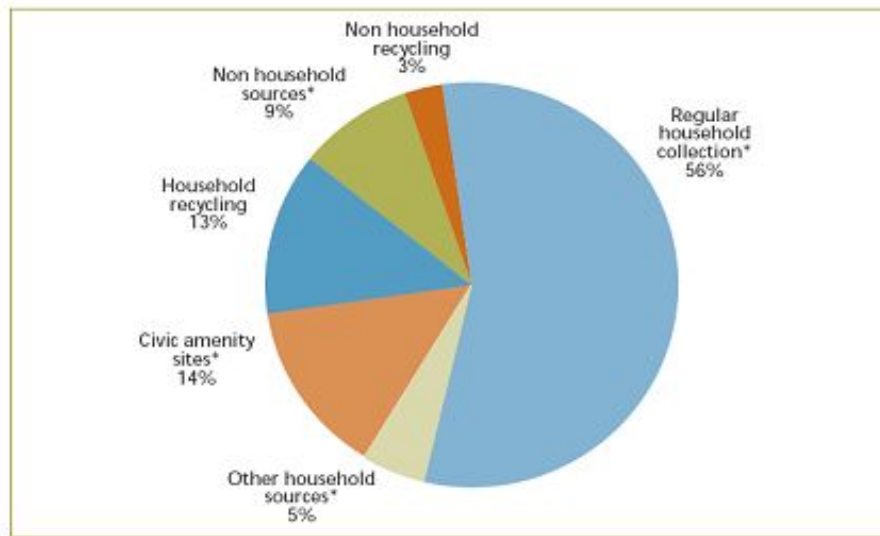
수거된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생분해성폐기물은 혐기성소화를 하거나, 호기성퇴비화(혹은 안정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림 II-35>와 같이 MBT시설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물론 MBT시설에서 선별된 고발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은 여러 가지 유형의 열적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열적처리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단순히 처리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것도 높은 에너지변환 효율을 고려하여 시설유형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35> MBT 처리 조건

2) 도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2년~2003년까지 잉글랜드에서 발생한 도시폐기물은 총 2,930만톤에 달한다(환경수송 지역부(DETR) 및 환경식품농업국(DEFRA), 2002년 4월1일부터 2003년 3월31일까지 회계 년도를 기준으로 조사). 2001~2002년에 발생한 2,880만톤에 비하면 1.3%가 증가하였지만 1996~1997년부터 3%씩 증가하던 추세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에 발생한 도시 폐기물중 56%는 가정에서 배출되었으며, 공원이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에서 14%, 비가정계 에서 9%로 배출되었다(<그림 I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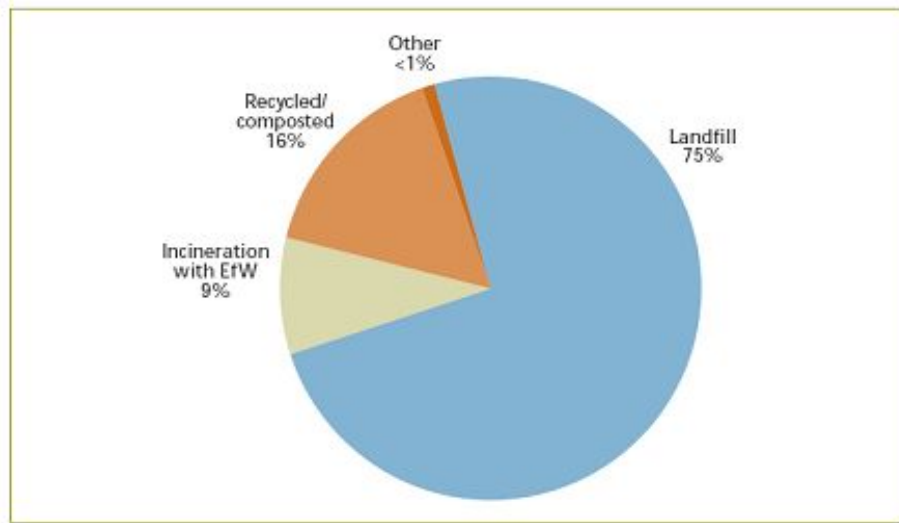
<그림 II-31> 영국의 폐기물 발생원 분포

도시폐기물 중 가정 부문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양은 2,580만톤이며 도시폐기물의 88%에 해당된다. 이 수치는 1가구에서 1주일간 약 23.8kg의 폐기물을 배출한 셈이 된다. 순수하게 가정에서 1주일간 1가구에서 배출되는 양은 15.2kg이며 수거 방법별로 구분하면 <표 II-28>과 같다. 바퀴달린 폐기물통으로 수거되는 양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봉투로 수거되는 양은 25%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거방법별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도 주목하여야 할 요소이다.

<표 II-28> 영국의 폐기물 수거방식

| | percentage of authorities | recycling rate |
|--------------------|---------------------------|----------------|
| wheeled bin | 53% | 13.0% |
| plastic sack | 25% | 15.0% |
| no method provided | 19% | 16.8% |
| other | 3% | 10.4% |
| total | 100% | 14.5% |

도시폐기물의 처리방법별 현황을 보면 <그림 II-32>와 같다. 잉글랜드의 경우 아직도 매립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재활용 및 퇴비화 비율이 낮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립 비율이 감소하고 재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2001~2002년 사이에 매립이 77%에서 75%로 2% 정도가 줄었고, 양으로 치면 2,230만톤에서 2,200만톤으로 30만톤이 줄어들었다. 재활용과 퇴비화 등의 2002년 회수량은 730만톤(25%)으로 전해의 640만톤(22%)에 비해 증가하였다. 소각은 250만톤에서 260만톤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체 처리량의 9% 이밖에 해당된다.



<그림 II-32> 영국의 폐기물처리현황

웨일즈에서는 기존의 일반적 폐기물 처리방법 이외에도 생분해성 폐기물의 재활용 및 퇴비화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II-29>는 웨일즈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된 도시폐기물의 조성을 재활용과 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성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II-29> 웨일즈지방 MSW의 조성에 관한 예비평가

| Waste category | Proportion of the municipal waste stream (% by weight) | Breakdown of estimated recyclability /compostability as a proportion of the municipal waste stream (% by weight) | Breakdown of estimated biodegradability as a proportion of the municipal waste stream (% by weight) |
|-----------------------------|--|--|---|
| Newspapers & magazines | 8.7 | 8.7 | 8.70 |
| Other recyclable paper | 4.1 | 4.1 | 4.10 |
| Card packaging | 7.8 | 7.8 | 7.80 |
| Other paper | 5.0 | - | 5.00 |
| Plastic film | 3.2 | 1.6 | 0.00 |
| Dense plastic packaging | 3.2 | 3.2 | 0.00 |
| Other dense plastic | 0.8 | - | 0.00 |
| Textiles | 2.2 | 2.2 | 1.10 |
| Other combustibles | 12.1 | 3.0 | 6.05 |
| Glass | 6.2 | 6.2 | 0.00 |
| Compostable kitchen waste | 8.0 | 8.0 | 8.00 |
| Garden waste | 10.3 | 10.3 | 10.30 |
| Soil & other putrescibles | 10.7 | 3.0 | 10.70 |
| Ferrous cans | 1.7 | 1.7 | 0.00 |
| Other ferrous metal | 2.8 | 2.8 | 0.00 |
| Non-ferrous metal | 0.9 | 0.9 | 0.00 |
| WEEE | 3.0 | 2.4 | 0.00 |
| Potentially hazardous | 0.5 | - | 0.00 |
| Fines | 3.7 | - | 2.22 |
| DIY & other non-combustible | 5.1 | 1.0 | 0.00 |
| TOTAL | 100 | 66.9 | 63.97 |

<표 II-30>은 EU 회원국의 도시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생분해성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현황을 비교한 표로서 영국과 웨일즈의 경우 전체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이 폐기물관리 정책에 있어서는 개선될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생분해성 폐기물의 수거율이 60%를 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등이 있다.

〈표 II-30〉 유럽 생분해성 폐기물의 분리수거

| Country | Total MW in 1000s tonnes | Total separately collectable MW biowaste in 1000s tonnes | Separately collected biowaste in 1000s tonnes | Separately collected biowastes as % total collectable biowastes | Separately collected biowastes as % of total MW |
|-------------|--------------------------|--|---|---|---|
| Austria | 2800 | 800 | 600 | 75.00 | 21.42 |
| Flanders | 3126 | 1159 | 724 | 62.46 | 23.09 |
| Denmark | 2780 | 973 | 652 | 67.01 | 23.40 |
| Germany | 49100 | 9000 | 5500 | 61.11 | 11.00 |
| Luxembourg | 250 | 109 | 34 | 31.05 | 13.60 |
| Netherlands | 8220 | 3452 | 1790 | 51.85 | 21.66 |
| Sweden | 3810 | 1500 | 400 | 26.67 | 10.48 |
| UK | 34000 | 10880 | 619 | 5.68 | 1.79 |
| Wales | 1622 | 345* | 12 | 3.5 | 0.74 |

Source: Dominic Hogg, Josef Barth, Enzo Favoino, Massimo Centemero, Valentina Cairi, Florian Amlinger, Ward Devliegher, Will Brinton & Susan Antler: Comparison of Compost Standards within the EU, North America and Australasia, a report to WRAP.
 * Data from 'Pilot study on waste composition in W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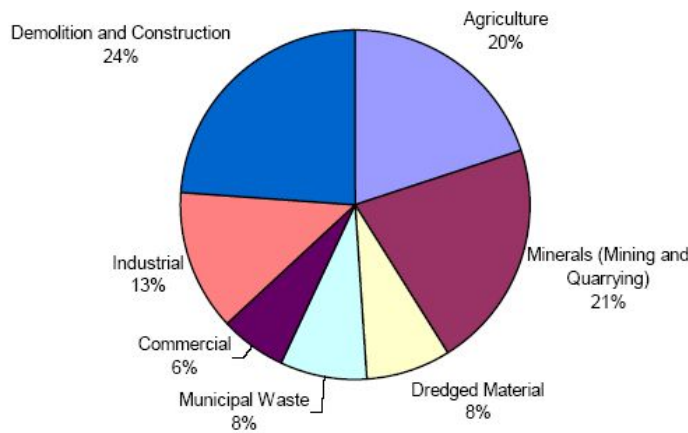
〈표 II-31〉은 웨일즈가 EU Landfill Directive를 반영하기 위한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매립량 감축목표 이행계획이다. 처리시설의 수요 예측을 위해, 도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를 고려한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있다. 웨일즈의 경우, 1995년 기준으로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발생량 중 매립이 80%를 넘는 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감축목표 달성년도를 최대한 4년 유예할 수 있다.

〈표 II-31〉 웨일즈 지방의 생분해성 폐기물 매립처분 감량 목표

| Growth in municipal waste | Diversion away from landfill (1000s tonnes) of source segregated BMW required to meet the Landfill Directive targets in each target year (assuming 64% biodegradable waste content) | | |
|---------------------------|---|------|------|
| | 2010 | 2013 | 2020 |
| 0% | 363 | 588 | 723 |
| 1% | 483 | 743 | 964 |
| 2% | 616 | 920 | 1258 |
| 3% | 762 | 1120 | 1616 |

[영국의 폐기물관련 투자전략]

2003년 12월 Defra 조사에 의하면 영국 총 폐기물발생량은 연간 434백만톤에 이르며 발생원별로 보면 〈그림 II-36〉과 같다.



<그림 II-36> 영국의 폐기물 조성

도시폐기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동 특징을 보인다.

- 잉글랜드 : 2002~2003년에 2930만톤이 발생, 전년에 비해 1.8% 증가
- 웨일즈 : 2001~2002년에 172만톤이 발생, 전년대비 4% 증가
- 스코틀랜드 : 2001~2002년 330만톤 발생, 전년대비 3.1% 증가
- 북아일랜드 : 2000~2001년 105만톤 발생, 전년대비 5% 증가

이 중 잉글랜드에서 도시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처리현황을 보면 <표 II-32>와 같다. 매립의 경우 84%에서 75%로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립의존도가 높다. 이는 다변화된 폐기물처리 시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소각, RDF, Compost를 균형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도 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II-32> 잉글랜드의 도시폐기물 증가량 및 처리방법

| Method | England | | | | | | |
|--------------------------------|---------------|---------------|---------------|---------------|---------------|---------------|---------------|
| | 1996/97 | 1997/98 | 1998/99 | 1999/00 | 2000/01 | 2001/02 | 2002/03 |
| Landfill (000) | 20,631 | 21,765 | 21,534 | 21,963 | 22,039 | 22,288 | 21,969 |
| (percentage) | 84% | 85% | 82% | 80% | 79% | 77% | 75% |
| Incineration with EfW (000) | 1,446 | 1,624 | 2,117 | 2,302 | 2,391 | 2,458 | 2,607 |
| (percentage) | 6% | 6% | 8% | 8% | 9% | 9% | 9% |
| Incineration without EfW (000) | 614 | 66 | 17 | 8 | 20 | 8 | 7 |
| (percentage) | 2% | 0% | 0% | 0% | 0% | 0% | 0% |
| RDF manufacture (000) | 147 | 156 | 133 | 106 | 67 | 84 | 87 |
| (percentage) | 1% | 1% | 1% | 0% | 0% | 0% | 0% |
| Recycled/composted (000) | 1,750 | 2,063 | 2,525 | 3,097 | 3,446 | 3,905 | 4,577 |
| (percentage) | 7% | 8% | 10% | 11% | 12% | 14% | 16% |
| Other | 0 | 36 | 10 | 4 | 95 | 48 | 62 |
| (percentage) | 0% | 0% | 0% | 0% | 0% | 0% | 0% |
| Total (000) | 24,588 | 25,711 | 26,337 | 27,480 | 28,057 | 28,791 | 29,308 |

<표 II-33>은 영국이 2020년까지 EU의 Landfill Directive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수요(시설수, 비용, 토지소요, 일자리창출, 에너지회수)를 4가지 시나리오별로 요약한 내용이다.

<표 II-33> 영국의 Landfill Directive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

| Profile/Scenario | High Landfill and Recycling | High Incineration with Energy Recovery and Recycling | High Composting and Recycling | High Incineration with Energy Recovery and Composting |
|---|-----------------------------|--|-------------------------------|---|
| Number of Facilities | 1,544 | 1,858 | 1,525 | 2,300 |
| Capitalisation at Replacement Costs (£Bn) | 10.4 | 20.2 | 12.6 | 33.6 |
| Employment (000) | 40 | 42 | 40 | 78 |
| Hectares (000) | 28.8 | 11.4 | 13.3 | 28.4 |
| Potential Energy Generation (Mw) | 2,800 | 4,700 | 3,000 | 7,400 |

<표 II-33>에 의하면 영국이 EU의 Landfill Directive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000개가 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104억~336억파운드의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폐자동차, 배터리, 가전제품, 포장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설들도 포함되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40,000~78,0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보았다.

영국은 2001년에 폐기물전략을 수립하여 매립세를 올렸으며, 가전제품, 폐자동차, 폐배터리, 포장폐기물들은 생산자책임제도의 정책 대상이 되었다. 영국은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감축을 위해 다음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 2010년 목표를 위해 매년 320만톤의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회수
- 2013년 목표를 위해 매년 750만톤의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회수
- 2020년 목표를 위해 매년 1010만톤의 생분해성 도시폐기물 회수

이러한 목표는 도시폐기물중에 60%가 생분해성 도시폐기물이라는 가정하에 환산한 수치이다. 그러나 한 조사에 의하면 생분해성 폐기물의 비율이 68%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다. 처음 목표인 201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할 연간 비용이 180백만파운드에 달한다는 결과가 Defra의 Waste Implementation Program에 의해 산출되었다.

이처럼 영국정부는 EU의 폐기물관련 법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는 제도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 지자체에서는 최근 폐기물관리에 관한 전략도출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주현수 등,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시설의 다변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5